

39번째, 농기구이야기

흙을 판판하게 고르는 ‘나래’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6.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나래의 개념

나래는 논밭을 반반하게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썰레와 비슷하나 아래에 발 대신에 널판이나 철판으로 가로대어 흙 따위를 밀어내는 데 쓴다. 18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물보(物譜)』와 1839년 간행된 『사류박해(事類博解)』에서 '나래'로 불렸으며 한문으로는 괄판(刮板)으로 쓴다.

나래는 지방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 이는 나래가 일부지역에서만 사용되었으며, 만드는 사람의 쓰임새에 맞게 변형되어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래는 특히 번지와 혼용되기도 한다. 썰레에 덧대어 쓰는 번지를 '번데기 왕판' 또는 '미래'라 하고 나래를 '번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는 나래와 유사하게 번지도 썰레질이 끝난 논흙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 나래의 형태

나래는 길이 1~1.5m 되는 널빤지를 한 장 또는 여러 장을 겹쳐 높이기 40~60cm가 되게 만든 판나래가 많지만, 위쪽은 널빤지 대신 대쪽이나 싸리 또는 짚을 발처럼 엮어서 대기도 하였다. 그리고 흙을 깎아내기 위해 널빤지 바닥에 쇠날(칼)을 댄 칼나래와, 가렛날과 같은 말굽쇠 모양의 날을 여러 개를 박아 만든 삽나래도 있다. 널빤지 양쪽에 붓줄을 배고 소가 끄는데 바닥이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낮은 곳으로 밀어내면서 땅을 판판하게 고른다. 지네형 나래는 썰레와 비슷한 형태로 발을 세로방향으로 박아 만든 것이다. 나래와 마찬가지로 논밭의 흙을 고르는데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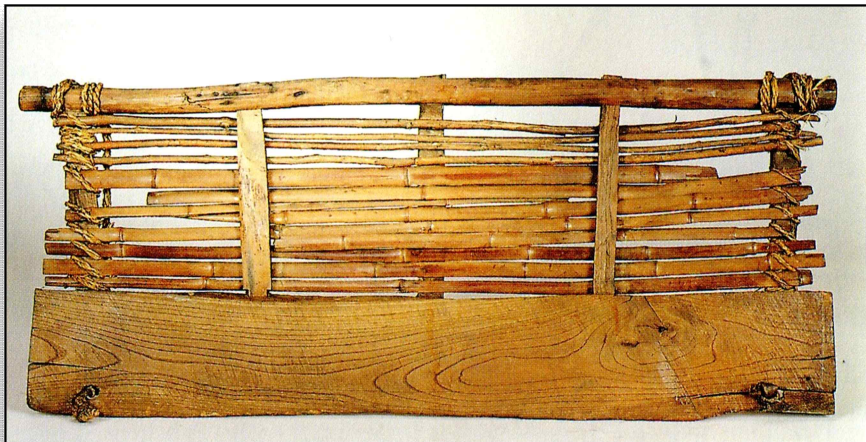


<지네형 나래>

3. 나래의 용도

나래는 썰레질을 한 후, 번지질을 하기 전에 논밭의 흙을 판판하게 고르는데 사용한다. 소에 매어 끌기도 하고 사람이 직접 끌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래 한 틀은 사람 10명이 일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나래는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낮은 데로 밀어 보내는데 사용한다. 특히 바닥이 평평한 나래는 곡식을 퍼 널거나 끌어 모으는데도 썼다. 또한 집터를 고르거나 개간한 땅을 고를 때에도 썼다.

나래는 기본적으로 흙을 밀어내어 바닥의 수평을 맞추는데 쓰였으며 형태에 따라 조금씩 주요 쓰임새가 달랐다. 판나래(널나래)는 바닥의 널을 대어 만든 나래로, 널빤지를 밀고 앞으로 나가면서 바닥면의 수평을 맞추는데 주로 쓰였다. 특히 딱딱하지 않은 논바닥을 고를 때 주로 쓰였으며 말린 곡식을 퍼서 널거나 모을 때에도 고무래를 대신하여 쓰였다. 삽 형태의 날이 여러 개 달린 삽나래는 논밭에 물이 나서 흘러 들어간 흙무더기를 밀어낼 때 주로 쓰였다.



<판나래> ©한국농기구도감

한편, 나래는 논밭뿐만 아니라 소금밭(鹽田)을 고를 때도 쓰인다. 물에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기 마련인데 천일염(天日鹽)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지 않아도 되지만 자염(煮鹽)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는 작업이 수반된다. 자염을 얻기 위한 전단계로 썰레질, 덩이질, 나래질 같이 염전의 흙을 갈아엎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염은 바닷물을 간수로 만들고 이 간수를 가마에 부어서 불을 때서 만드는 것으로 노동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염전밭가는 소리가 불리기도 하였다. 자염전의 염부들이 염밭을 고르게 다지는 과정에서 이 소리가 불렸고, 덩이를 바술 때에 하는 덩이질, 넓게 퍼서 번지게 하는 나래질에서 이 소리가 불렸다. 나래질은 논을 삶을 때에 번지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흙을 삶는 농기구

논밭의 흙을 썰레로 썰고 번지나 나래로 골라 노글노글하게 만드는 것을 '삶는다'라고 표현한다. 삶기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뿐만 아니라 농사에 좋지 않은 잡초의 씨를 땅 속 깊이 묻고 그 뿌리를 끊어버림으로써 곡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름철의 어려운 김매기도 줄여준다.



<번지>



<썰레질>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한국농기구도감』,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